

코스피 추락하는데 ‘빚투’ 늘어… 신용융자 잔고 20兆 육박

신용거래용자, 올해 들어 최고치
코스피 잔액 10.6兆, 코스닥 9.1兆
반도체 대표주에만 약 1兆 집중
금리인하 지연에 코스피 하락폭 ↑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약 20조원에 육박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주가지수는 오히려 연초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레버리지를 노린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예상된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19조 7567억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지난달에만 약 6000억원이 증가했다. 마지막 거래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2636.52로 연초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빚내서 투자(빚투)’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용거래용자란 개인 투자자가 주식 매수 자금을 증권사에서 빌리는 것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개인 투자자가 주식 시장에서 손실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이다.

로, 신용거래용자잔고가 늘수록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초(1월 2일 기준) 17조 5370억원이었던 신용거래용자잔고는 5월 30일 기

준 19조 7567억원으로 2조가량 불었다. 현재 신용융자 잔액은 코스피는 10조 6082억원, 코스닥은 9조 1485억원으로 나란히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9일 기준 코스피에서 신용융자 잔액이 가장 많은 종목은 삼성전자로 6807억원이 몰렸으며, SK하이닉스도 2496억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대표주에만 약 1조원이 집중된 셈이다. 더불어 이차전지 관련주에 대한 빚투 선호도 높게 나타났다. 코스피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5034억원,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각각 2528억원, 2000억원으로 신용융자가 많았다.

하지만 이들의 주가 흐름은 양호하지 않았다. 신용융자 잔고율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주가가 6.37% 떨어졌다. 게다가 2차전지 관련주도 올해 급락세를 보였던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코프로비엠(-33.57%)과 에코프로(-27.04%), 포스코홀딩스(-26.12%) 모두 주가가 연초보다 25% 넘게 빠졌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열풍에 수혜를 입으면서 상승세를 보이

기도 했다. 이미 고대역폭메모리(HBM) 점유율 우위에 있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평가되면서 희비가 갈린 것이다. 연초부터 5월 31일까지 33.71%나 올랐다. 5월 28일에는 20만 2500원까지 터치하며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다만 SK하이닉스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전반적인 투심이 축소되자 ‘20만닉스’를 내주고 현재는 18만 9200원까지 내려갔다.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에만 코스피 지수는 3.21% 급락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해당 기간에도 빚투를 늘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5월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충격 이후 연이은 경제 지표 호조, 국제입찰 부진 등의 여파로 채권 금리의 레벨업이 지속됐다”며 “채권 금리 방향성에 예민한 코스피는 하락 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STO 제도화, 국회 임기종료에 ‘불투명’

시장 선점 나섰던 증권사 실망감 ↑
22대 국회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해야
여야 모두 공약… 법제화 추진될 것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시장 선점에 나섰던 증권업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토큰시장을 새로운 사업 분야로 보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구축한 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데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이뤄져야 하는 등 정책 불확실성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해당 개정안은 STO의 유통 근거와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STO는 미술품과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증권을 뜻한다. K-팝 관련 저작권이나 미술작품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증권업계 미래 먹거리 시장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STO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토큰증권 시장의 선점을 위해 공들여 왔다.

토큰증권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선 다양한 상품뿐 아니라 거래가 용이한 플랫폼, 장외거래 중개 업체, 관련 기술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관련 기업들과 컨소시엄 또는 협의체를 만들고 플랫폼 구축에 투자를 진행했다. 실제로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STO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고, 키움·IBK투자·대신·유안타증권 등은 코스콤과 STO 공동플랫폼을 만들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이 현안으로 떠오르는 데다 이후 총선 국면에 접어들며 관련법안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돼 증권사들은 수백억원을 낭비할 상황에 부닥쳤다.

업계는 토큰 증권 관련 제도화를 위해선 관련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단

계를 밟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다수가 교체된 데다, 당시 토큰증권 관련 가이드라인과 법안을 만들었던 금융위원회 실무자들도 상당수 바뀌어 연속성 있는 법안이 나올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STO 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STO 시장이 개화될 경우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까지 369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총선 공약으로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어 업계에서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토큰증권의 법제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 양측의 공약집에 토큰 증권 관련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공통으로 포함돼 있어 재발의 자체는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관희기자 wkh@

코스콤-BNK투자증권, STO 플랫폼 준비

공동 플랫폼 효율성·확장성 강화

코스콤이 BNK투자증권과 토큰증권(STO) 플랫폼사업을 위해 손을 잡았다. 토큰증권 시장 개장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코스콤은 BNK투자증권과 함께 토큰증권 플랫폼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달 30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스콤이 토큰증권 사업과 관련해 증권사와 맺은 다섯 번째 협약으로, 앞서 코스콤은 지난해 키움증권과의 업무협약을 필두로, 올해 대신증권, IBK투자증권 및 유안타증권과도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코스콤은 키움증권과 협력해 현재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을 구축 완료한 상태다. 이번 BNK투자증권과의 협약을 통해 코스콤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의 효율성과 확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BNK투자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미술품 등 다양한 고액 자산을



지난달 30일 코스콤 본사에서 이승범 코스콤 전무(오른쪽)가 이상선 BNK투자증권 전무와 토큰증권 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코스콤

토큰화해 소액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자산 유동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범 코스콤 전무는 “다수 증권사와의 협약을 통해 IT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토큰증권 발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나아가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연이은 악재에도 ‘저가매수’ 선택 받았다

metro 관심종목
삼성전자

반도체 위기론·노조파업 등에도
개인 적극 매수… 목표가도 상향

‘반도체 위기론’부터 ‘장사 이래 첫 노조파업’까지, 삼성전자를 둘러싼 악재가 연달아 터지고 있지만, 증권가와 개인투자자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1일 삼성전

자의 증가는 전일 대비 1700원(2.26%) 하락한 7만 3500원을 기록했다. 증가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7만 4000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3월 19일 이후 72일 만이다. 다만 근래의 삼성전자 주가 행보는 ‘10만 전자’는 커녕 자칫하면 등락을 거듭하다 ‘6만 전자’로 갈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예상도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의 주가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납품을 위한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난 23일(현지시간) 하락세를 나타냈다. 여기에 삼성전

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성과급 지급 방식 변경을 요구하며 지난달 29일 파업을 선언한 점도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악재 속에도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 종목이자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외국인들은 지난 23일부터 31일까지 거래일 7일 동안 23일 하루를 제외하고 주식 매도에 나섰다. 반면 개인은 23일과 28일 이틀을 제외하고 적극적인 매수에 나섰다.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고 여기는 개인투자자가 많아진 것이다.

다음투자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10만 5000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교보증권, 신용거래 이자율 이벤트 진행

이자율 연 4.5% 적용

교보증권은 오는 7월 말까지 ‘신용거래 이자율 이벤트 시즌2’를 진행한다.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규 및 휴면고객 대상으로 신규 신용 매수분부터 매수건별로 100일 동안 신용거래 이자율 연 4.5%를 적용한다. 신청방법은 교보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Win.K에 접속해 ‘이벤트 등록-신용이벤트’ 코너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상규 WM사업본부장은 “고금리시기 투자자들의 이자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TIGER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및 공모주 하이일드펀드, 초단기우량채펀드 가입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TIGER ETF 500만원 이상 순매수 시 2만원, 1000만원 이상 순매수 시 3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교보역사 공모주 하이일드펀드와 초단기우량채펀드 가입시 금액에 따라 최소 1만원부터 최대 3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각각 지급한다.

이벤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보증권 홈페이지 이벤트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하은 기자